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홍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5 권 6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 30 분(스페인어)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성경공부: 주일미사 (오전 8 시) 후 친교실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부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오후 5:00 - 5:30). 금 (오전 9:00 - 9:30)

임원회의: 매월 둘째 화요일 오후 8 시, 평협회장: 박영우 니콜라스 (661-703-5957)

성당사무실 시간: 월, 금요일(오후 2-8시). 화, 목요일(오후 2-6시).

미 사 성 가	입당 ()	봉헌 ()	성체 ()	파견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은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나이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덕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아멘.			목주의 기도 바치는 법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2/8	이 클라라	김 헬레나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15	이 마틸다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2/22	유 요한	김 헬레나	성인복사
3/1	이 클라라	이 바오로	허 벤자민, 박 다니엘

*'제 1 독서' (한글)/ '제 2 독서' (영어).

미사 봉헌금 및 교무금

주일미사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2/1	\$ 362.00	\$ 135.00	\$ 700.00

* 2 차 봉헌: 매월 첫째, 셋째 주일미사. *미사책 값: \$ 50.00

'2014 년도 재무보고서' 관련 안내

오늘 한인공동체 2014 년도 재무보고서를 나눠 드립니다. 미사봉헌금은 본당 건축기금에 사용됩니다. 우리 한인공동체의 모든 활동은 신자들의 교무금으로만 운영되오니, 금년 2015 년도 교무금을 책정하시는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무금은 신자들의 의무인 동시에, 하느님께 대한 봉헌, 사랑의 표현입니다.

한국어 평일미사: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

매주 수요일 저녁 7 시 30 분에 한국어 평일 미사가 있습니다.

사순절 '십자가의 길':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

사순절동안 매주 금요일 저녁 7 시 한국어 '십자가의 길' 있습니다.
2/18 (수): 재의 수요일, 오전 9 시 30 분 미사(영어), 오후 5 시 전례(영어).
2/22 (주일): 사순 제 1 주일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을 위한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공 동 체 소 식

예비신자 교리반: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예비자 교리반이 1 월 30 일(금) 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부터 시작됩니다. 장소는 손 케네스 형제님택입니다.
예비신자 교리반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면, 회장님 또는 유 요한 형제님께 문의 및 신청해 주십시오.

2015 년도 '매일미사' 책값: 가정당 \$50

2015 년도 1 년치 '매일미사' 책값을 각 가정당 \$50 (각 가정당 1 권씩 보는 경우)을 이 그레이스 재무부장님께 제출해 주십시오.

소공동체 구역모임: 2/15 (주일) 주일미사 후

2 월 소공동체 구역모임은 셋째 주일인, 2 월 15 일(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산클레멘테 Parking Lot Sale: 2/28 (토) 오전 7 시-오후 1 시

산클레멘테 공동체 '주차장 세일 행사'가 2 월 28 일 오전에 있습니다. 물품을 후원하시고 싶으시거나, 벤더(Vendor)로 참여하실 분은, **Susana (661-247-7970)** 자매님에게 문의해 주십시오.

Vendor Set-Up: 오전 5:30-6:30. OPEN to the public: 오전 7 시- 오후 1 시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

세금보고시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보고를 위한 영수증(Charity Donation Receipt)이 필요하신 분은 재무부장 (이그레이스 자매)님께 1 월 31 일부터 신청해 주십시오.

'2014 년도 크리스마스 콘서트' 관련 영상 및 기사

지난 연말 '산클레멘테 크리스마스 콘서트' 동영상은 Youtube.com 에 올라와 있습니다. 'San Clemente Choir Christmas Special'로 검색하시면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가톨릭 신문'의 본당소식에도 콘서트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SNS Facebook 주소: '산클레멘테 미션'

<https://www.facebook.com/sanclemente.missionparish>

말씀의 이삭

한계를 뛰어넘는 운동의 세계

최민호 바오로 | 유도 코치

합숙 훈련소 생활을 시작하며, 엘리트 운동선수로 들어섰다는 기대와 함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훈련 일정은 굉장히 고된 시간이었습니다.

아침 6시, 운동장 10바퀴를 뛰며 새벽 운동을 시작합니다. 전력으로 달리고 난 뒤, 두 명씩 짝을 지어 발목을 잡아 주면 앞뒤로 두 팔로 100미터를 달립니다. 아무 생각도 들지 않고 호흡은 턱밑까지 차오릅니다.

10시부터는 근력 강화운동으로, 역기를 들지 못할 정도로 무겁게 끼워 드는 것입니다. 저는 한창때 허리만으로 드는 데드리프트를 230kg을 들었으니 제 체중 66kg의 4배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점심을 먹을 때는 한 손엔 악력기로 운동을 하며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뜨면서 탁 찬다는 느낌으로 숟가락 채기를 반복했는데, 국물이 다 흘러도 생활 속에서 유도 연습을 계속 했습니다.

오후 운동은 전술 훈련인 유도입니다. 이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잠깐의 휴식을 취하지만, 너무 힘들어 가슴이 뻐집니다. 때로는 고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어 울기도 합니다. 울고 나면 잠깐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기도를 드릴 줄모르던 제가 하도 힘이 들어 고통 속에서 하느님을 찾습니다. 제대로 쉴 시간도 없이 훈련에 들어가야 하기에 하느님과 어머니가 유일한 저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오직 어머니만 생각하며 열심히 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훈련이 이어지고 7판 정도 하면 일어나기 힘들 정도가 됩니다. 그럴수록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감히 이기게 해달라고는 하지 못하고, 제발 이 시간을 버티게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유도복이 3키로 정도 나가는데, 2시간 반 동안 운동을 하고 나서 도복을 짜면 땀이 주르륵

떨어졌습니다. 상당한 고강도 훈련을 하고는 땀에 쓰러져 한동안 누워 있습니다. 운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다시 일어나 고무줄을 철봉에 매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지곤 합니다. 눈물을 흘리고 나면 정말 마음이 편안해져 잠시나마 힘이 나는 것이 참 신기했습니다.

야간 훈련은 8시부터 고무줄 당기기를 합니다. 단단한 고무줄을 가지고 실전 업어치기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운동입니다. 근육통으로 온몸이 쑤시지만 쉬어 가는 것 없이 다시 운동에 돌입하면 집중력이 향상됐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팠던 근육들이 다시 땀을 흘리면서 덜 아파집니다. 움직이지 못할 것 같은데 이를 꼭 깨물고 하면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자정이 넘어서야 혼자서 하는 훈련이 끝나고 잠을 청할 수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되지만 잠들기 전에는 늘 고생하시는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어머니를 환히 웃게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커지면서 운동을 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하다고 하느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고요해져서 하느님의 말씀이 들릴 때까지 그대로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 쇠렌 키르케고르 -

<서울주보에서>